

#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조_아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017.03.01~2017.06.26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위치는 스카이트레인역 (49<sup>th</sup> langara station), 버스로는 manitoba정류장에 있습니다. 다운타운과는 비교적 가까운 편이며 근처에 본교만큼 먹거리나 문화시설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벤쿠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구조가 블록 구조라 길은 찾기 쉽습니다. 도서관은 청결하고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으며, 식당에서 여러 음식을 사먹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 유니언관에 가면 더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볼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밥을 사먹는 것은 비추입니다. 보통 캐나다는 학교에서 본교처럼 학식을 지급하지 않으며, 점심을 도시락으로 싸서 다닙니다. 한번씩 피치 못하게 도시락을 싸지 못해서 정, 사먹고 싶다면 한 정거장만가면 Oakridge 역에서 food court가 있으니 이용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교내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보통 인도인들이 떼지어 다니는데 꽤 신선한 문화충격이었습니다. 학교 옆에는 YMCA라고 헬스장이 있습니다. 수영, 요가, 싸이클, 줌바댄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냥 헬스 시설 이용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사설이라 한국에 비하면 비싼건 아니지만 캐나다에서는 비싸다고 여겨지는 편입니다. 캐나다는 공공시설로 community centre가 많은데 시민문화체육관 개념입니다. mainstreet근처에 sunset centre가 있으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이용하시려면 그 쪽 가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은 굉장히 편한 곳에 학교가 위치해있습니다.</p>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i></p> <p><i>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LEAP프로그램은 영어 스킬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으로 해서 상상관 다르게 매우 지루합니다. 선생님에 따라 얼마나 융통성 있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결정되는데, LEAP3에선 선생님이 유머러스 하셔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수업 들었는데, LEAP4에서는 선생님이 하도 지루해서 하품만 하다 시간 보냈습니다. LEAP3까지는12:30~4:30 네시간, 그 이상 레벨부터는 오전 8:30~12:30 네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과제는 많은편입니다만 전공</p>

	<p>과제보다 부담이 덜하고 무게가 덜하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는 크게 받지 않고 잘해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기보다 도서관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해결하려고 해서 더 그랬던 걸 수도 있습니다. 첫 반은 오리엔테이션 주에 몇가지 테스트를 통해 결정되고, 두번째 반은 전 반 final test로 패스 페일이 결정되며 패스시, 레벨이 올라가고 페일시, 그 레벨에 머물게 됩니다. 목적이 다 영어 스킬 증진이기 때문에 상상과는 다르게 대부분 아시아인들이고, 주로 중국인 베트남인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파란눈, 노란머리 서양인은 학교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며, 실제로 밴쿠버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밴쿠버는 중국과 인도 포션이 진짜 큼니다. 중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은 정말 거만합니다. 조별 과제할때 이 악물고 임하셔야 될거예요. 개네는 발음도 이상해서 알아먹기 힘듭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오리엔테이션 주는 일찍 끝납니다. 각자 자기 부서랑 담당역할을 설명해주면 잘 들으세요. 홈스테이에 문제 생기면 가야하는 곳이 따로 정해져있고 만나야 하는 사람이 따로정해져있습니다. 수업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가야 하는곳이 따로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홈스테이 집을 한번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홈스테이 담당인 <b>케일리</b> 코디네이터가 정말 친절하게 문제를 잘 해결해줬습니다. 랑가라 컬리지에는 메디컬 센터도 있고, 홈스테이 담당 사무실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IE 사무실도 있어서 문제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결 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거예요.</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p>날씨</p>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제가 도착한 2월 후반부터 5월 초 중반까지는 미친 듯이 비가 내렸습니다. 밴쿠버는 항구도시고 섬이라서 맑은 날씨를 찾아보기란 좀처럼 드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밴쿠버 사람들은 우울증 방지를 위해 비타민D를 많이 섭취합니다. 운 좋게 귀국하기 전, 두 달이 여름 시작이라 날씨가 엄청 좋았고, 페스티벌이 가장 많이 열리는 시즌이어서 막판에 많이 즐겼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주구장창 와서 햇빛 비추는 날을 축복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밴쿠버는 대체적으로 비가 너무 지나치게 엄청 많이옵니다. 밴쿠버는 눈이 잘 안 온다고 했는데, 올해는 기후이상으로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날씨에 기분이 결정되는 분들은 꽤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p>

<p>안전</p>	<p><i>현지 안전 상황</i></p> <p>단 한번도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위협을 느낀 적이 없을 정도로 벤쿠버 치안은 굉장히 잘되어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로, 스카이트레인 역에 안전 지킴이처럼 초록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버스도 물론 있습니다. 가끔 경찰도 있습니다. 문제시, 그분들한테 말하면 진짜 다 해결해줍니다. 위험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밤에 활동하는 문화가 없어서 꽤 삭막합니다. 덧붙이자면 캐나다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블록구조라서 낮에도 가끔 '오...!...!'이런느낌 날 때 있습니다.</p>
<p>숙소</p>	<p><i>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 기타( )</i></p> <p><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랑가라 컬리지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학생이 홈스테이를 이용하며 개중에는 스위트룸 같은 구조를 통해 자취개념으로 살지만, 엄연히 자취량은 다릅니다. 저는 홈스테이를 했는데 첫번째 홈스테이랑 안맞아서 마지막 한달 남기고 옮겼습니다. 홈스테이 문제가 생기면 꼭 홈스테이 코디네이터랑 상의해서 한달전까지 이사나 이동에 관해 말을 맞추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첫달내는 1600불중 마지막달을 위한 800불이 디파짓용이라 돌려받지 못하게됩니다. 분위기나 규칙들은 집집마다 다를거라 생각됩니다. Left over이라는 문화로 보통 저녁때 밥을 많이 해서 다음날 점심도시락까지 싸줍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건, 건조한 기후 탓에 여기 사람들은 샤워를 잘 안하고, 수건을 말려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거처럼 수건을 매일매일 바꿔 쓰기 힘듭니다. 문화라고 생각하고 적응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꽤 고치기 힘들어서 처음에 호스트랑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든, 뭐든 안맞으면 호스트에게 먼저 말을 하셔야 합니다. 말 안하면 절대 모릅니다. 그분들은, 학생들이 얹혀사는게 아니라 돈을 냈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이상 정중하게 부탁하면 그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게 안되면 코디네이터에게 가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학기 동안 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걸 해결 못해서 첫 호스트 부부랑 한달 간은 말 안하고 얼굴 봐도 인사도 안했습니다. 한국 특성상,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뭘 요청하거나 부탁하는게 처음에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그런거 없기도 하고, 우리는 합당하게 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말해야 합니다. 가끔 호스트들중에서는 우리가 한국인 학생이라는 특성을 종종 이용해서 함부로 대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꼭 홈스테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위트룸 찾으시면 다음카페중 우밴유 추천합니다.</p>
<p>식사</p>	<p><i>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o)</i></p> <p><i>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 기타 ( )</i></p>

	<p><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Left over이라는 문화로 보통 저녁때 밥을 많이 해서 다음날 점심도시락까지 싸줍니다. 호스트 가정에 따라 밥 종류가 주로 정해집니다. 첫 호스트 가정은 홍콩 분들이라 중국음식이 많아 엄청 짜고 두부랑 굴소스가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 외국인 친구 역시 호스트 가족이 인도인이라 대체적인 밥이 카레 위주였습니다. 운 좋게 두번째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은 다양한 요리를 좋아하셔서 잘 먹었습니다만, 정 안맞으면 건의해야 합니다. 워낙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을 다 경험해본 분들이라, 어느정도 본토 음식은 하실 줄 알겁니다. 다만 자기 편하려고 자기 나라 음식을 할 뿐.</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밴쿠버는 꽤 스카이트레인이 유명 명소마다 다 연결되어있고 버스도 다 가는편이라서 교통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통학도 버스 타고 다니면 30분내지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홈스테이가 위치해서 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한화 899,000원(에어캐나다 이용)	일정 변경으로 인한 수수료 지불 (+한화 136,000원)
Fees	순천향대학교 1학기 등록금	
보험료	국내에서 미리 준비해갔습니다. 한화로 약 28만원에 해외 체류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숙소	800CAD * 4달	
식비	한달에 약 400~500CAD	
교통비	91CAD(monthly pass) * 4달	Compass card로 1ZONE (91달러) 충전하면 스카이트레인, 버스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합니다.
책값	약 10CAD * 4권	LEAP3 수강할 때만 썼던 내역이고 LEAP4에서는 안 썼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대출 가능해요.
--	-----------------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1. 우산 (벤쿠버는 여름 아니면 미친듯이 비가 옵니다.)
2. 돼지코 (벤쿠버는 110V쓰기 때문에 220V전환용 돼지코 준비하셔야합니다. 다이소에서 3개에 1000원)
3. ESTA (벤쿠버에서 시애틀 여행 계획하실 분들은 한국에서 esta(미국방문용 비자)를 미리 발급해 가시는 것을추천해드립니다.)
4. 양말 및 속옷(한울은 낮아도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비쌉니다. 특히 양말과 속옷 넉넉히 구비해 가세요. 그리고 나라 특성상 환경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잘 안 씻어서 보통 호스트 주인들이 빨래도 자주 안 합니다. 넉넉히 챙겨가세요.)
5. 데이터 (우리나라만큼은 아닙니다만, 꽤 와이파이 접근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긴급상황을 대비해 한달에 4G정도로 해서 미리 한국에서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 공용 데이터로 사서 시애틀 갔을 때도 데이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6. 공책, 학용품 사지마세요. (벤쿠버 달러라마마켓에서 거의 모든 물건을 1.25달러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7. 스킨 로션 수분공급용 넉넉히 챙기세요. (※※※날씨 진짜 건조합니다. ※※※)
8. 국내 에어라인 이용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귀국날짜를 앞당기게 되었는데 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비싸게 물어야 하지만 국내 에어라인은 수수료가 무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처음에는 한국 도피생활을 목적으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니다. 실제로 캐나다 가서 절대 한국인 안 만나고 외국인들이랑만 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영어도 확실히 효과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전화할 때 빼고는 한국말을 할 기회가 없었으니깐요. 평일에는 호스트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대화를 많이 하려고 애썼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문법이나 발음도 피드백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주로 먹는걸 목적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Robson street는 한인타운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인도 많고 한국음식도 있고 한글도 많습니다. 한번씩 한국음식 구미 당기실 때 가보세요. 공부에는 큰 노력 안 했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면 4학년 2학기라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할 시기라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미친듯이 놀기만 했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도 안하고 즐기자고만 마음먹으니까 밴쿠버 온 이래로 스트레스 단 한번 안받고 한국 가고 싶단 생각도 크게 안하고 네 달 시간 금방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성적이다, 취업준비다, 스펙이다 뭐다 해서 진짜 많이 치이고 바쁘고 내 자신에 대해 돌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제 스스로 여유로워진 모습도 보이고, 친구들이랑 가족도 좋아 보인다고 해서 진짜 좋았습니다. 인생터닝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정말 행복했고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원래 고향도 전라도라 신창에 있으면서 엄마아빠 많이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고향 자주 내려가고 그랬는데, 밴쿠버에서는 그때만큼 부모님 보고 싶어하지도 않고 혼자서도 잘 지냈습니다. 가끔, 외국인 분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면 흥미 가져주고, 대화 걸어주는 분들도 있어서 꽤 신선한 경험도 했습니다. 여행은 너무나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구글링으로 충분히 그 욕구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적도 있었습디만 이번을 통해 실제로 보고 겪은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 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들 중의 하나이며, 캐나다는 저에게 소중한 나라이기도 할 정도로 저는 엄청 만족하고 다녀왔습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Gastown(개스타운)은 야경이 진짜 예뻐요! 여기에 그 유명하다는 증기시계도 있는데 매 15분마다 증기가 나오는 시계예요! 근데 별거는 없어요 ~ 여기는 금요일밤이나 토요일밤에 가야 사람들도 많이보고 분위기도 흥이나요</p>	<p>여기는 리치몬드에서도 30-40분정도 더 깊이 들어가야하는 stevson(스팁슨)인데 저 피자는 꼭먹어야해요...! 팁합쳐서 46불정도하는데 연어, 랍스타, 게살, 새우 다 건실히 들어있어서 결코 비싼게 아녜어요. 근처에는 유명한 피쉬앤칩 가게인 Pajo's 도 있어요! 호스트아줌마가 밴쿠버에서 제일 맛있는 피쉬앤칩 가게라고했는데 저는 안먹어봤어요. 그래도 이 피자 먹어서 후회안해요!</p>



딥코브, 여기는 날 좋을 때 가셔야 해요. 노스밴쿠버라 가는길은 좀 걸려요. 등산을 요하지만 그렇게 험한 경사가 아니라 40분내지로 다녀올만해요. 근처에 허니도넛(유명맛집)도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빅토리아 국회의사당! 빅토리아는 당일치기로 갈 것을 추천해요. 사실 그닥 볼게 없거든요. 부차드 가든을 갈게 아니라면 당일여행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일박을 하는 큰 이유는 이 국회의사당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인데, 저는 당일치기로 다녀와서 보진 못했어요. 당일치기로 다녀오려면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편도로 3시간정도 걸립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향수 한번 없이 잘 지냈는데 이유는 친구들을 잘 사귀 덕이 아닌가 싶어요. 날 좋은날은 공원가서 점심도 같이먹고 주말마다 밴쿠버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쇼핑 다녔어요~



나잇마켓은 10월 어느날까지 한다고 했으니, 시간되면 꼭 가길 추천합니다. 금,토,일요일만 오픈하고 현금만 결제수단이에요.

야시장이라고해서 가격이 저렴한편은 아니지만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경험할 수 있고, 중간 중간 신나는 노래도 나와서 친구들이랑 즐길 수 있어요!



시애틀에도 다녀왔어요~ 밴쿠버에서 시애틀은 버스로 약 4시간정도 걸립니다. 왼쪽에 보이는 타워는 시애틀의 상징 스페이스 니들입니다! 위 사진은 Kerry park에서 찍었어요.



이 사진은 스페이스 니들 타워에서 야경 보려고 집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일부러 아주 늦을 때 안가고 골드빛 야경보려고 8시 반쯤 갔어요 (시애틀도 밴쿠버처럼 여름에는 일몰 시각이 거의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



여기는 Lynn Canyon (린캐년 서스펜션 브릿지)입니다. 원래는 캐필라노 브릿지를 가려고했는데 캐필라노는 입장료가 비싸고 가는 길이 힘들다고 해서 안갔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중에서는 꽤 괜찮아 하신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린캐년 서스펜션 브릿지도 충분히 흔들리고 재밌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기전 한학기동안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간다고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이 친구들 덕분에 성격도 긍정적으로 많이변하고 향수 한번없이 시간가는줄 모르고 잘 적응하다 와서 무척 고맙습니다. 내년엔 한국에 놀러온다고 해서, 꼭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